

경북도, 친환경에너지·농수산물로 몽골 시장진출 가속화

이철우 도지사, 울란바토르시 방문
그린도시·양수발전소 사업 맞손
몽골 최대 유통업체와 업무협약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은 1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섰다.

먼저 최진원 주몽골 한국대사 대리와 만나 몽골의 현황을 듣고 경북 우수 상품과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할 방안 등에 논의하고, 이어 아마르사이한 몽골 부총리와 만나 양 지역의 경제협력 및 경북의 그린에너지와 농수산물 등이 몽골에 진출하는 데 협조를 요청했다.

몽골 아마르사이한 부총리는 “경북은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스마트팜 사업 모델 등 몽골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울란바토르시청을 방문해 남바타르 시장과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울란바토르시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그린도시 조성 및 양수발전소 사업 추진에 경북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협조하고 경북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또한 사업 세부 실행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몽골국립에너지센터, 울란바타르시 주택 정책공사 간의 상호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은 1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아마르사이한 몽골 부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외에도 경북 지역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공모사업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신북방 에너지산업 시장개척을 위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및 실증사업(31억원, 2021.12.~2024.11.)에도 참여해 몽골의 광산업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몽골 최대 유통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 하이퍼마켓사의 자브스마 락바수렌(JAVZMAA LKHAGVASUREN) 대표이사와 몽골시장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울란바토르 이마트 항을 접에서 경북의 우수 농수산물을 시식, 판매하는 판촉전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북에서 생산한 수출 유망 식품을 발굴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홍보·판촉 및 판매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북 농수산물의 몽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경북 기업들이 그린에너지와 도시개발 사업 등 몽골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몽골 등 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의 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 10억불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서울시, 연내 ‘1역사 1동선’ 100% 확보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 ↑

서울시는 연말까지 ‘1역사 1동선’을 100% 확보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18일 밝혔다.

1역사 1동선은 장애인, 노약자 등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갈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말한다.

시는 현재 96.1%인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연말까지 10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올 4월 기준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는 마천·수락산·종로3가·상월곡·청담·구산·남구로·북정·고속터미널·신설동·대흥·상일동·까지

산역 등 13개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역 25곳에 시범 설치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을 내년까지 77개역 589곳으로 확대한다.

올 3월 기준 73.2%인 저상버스 도입률도 내년까지 100%로 올릴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인 ‘서울동행맵’을 신규 개설하고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연내 약 500대를 설치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등의 적·녹색 잔여 시간을 음성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음향 신호기의 기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

이달부터 ‘서울야외도서관 시즌2’ 진행

11월 10일까지... 여름엔 야간 운영

(금~토)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달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 시즌2’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최 장소는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이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목~일 주 4회, ‘광화문 책마당’은 금~일 주 3회, ‘책읽는 맑은냇가’는 4~6월, 9~10월 주 2회

한여름에도 시민들에게 끊임 없는 독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휴장하지 않고, 운영 시간을 야간(오후 4~9시)으로 조정해 ‘밤의 야외도서관’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책읽는 서울광장’은 공간을 전면 재구성한다. 가족, 친구와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2~3인용 ‘빈백(폭신한 의자)’을 비치해 화목한 독서 분위기를 선사한다. /김현정기자

교육부, 마이스터고 3곳 내외 신규지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중심 지정
2년간 총 50억 준비금·컨설팅 지원
준비기간 거쳐 2026년 3월 개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와 디지털 등 첨단산업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3곳 내외를 신규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4년 마이스터고등학교’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2027년

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54개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대구전자공고, 예산전자공고, 경북소프트웨어고 등 3개 학교가 추가로 지정돼 내년 마이스터고 전환 및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에 마이스

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오는 9월까지 교육부의 지정 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게 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마이스터고가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고졸 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경주시를 포함한 4개 원전소재 지자체(기장, 울주, 영광)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7일 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식을 했다.

경주시, 수도권 거주 대학생 주거안정 추진

경주, 기장, 울주, 영광 출신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시를 포함한 4개 원전소재 지자체(기장, 울주, 영광)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첫 삽을 떴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신계동(3~8번지) 일원 건립부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한 정종복 기장군수, 이순걸 울주군수, 김석기 국회의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국토교통부 소유

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비는 한수원 지원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올 4월 착공, 2026년 준공 및 1학기 개관 예정이다. 연합기숙사는 대지면적 3698㎡, 연면적 1만2082㎡에 지하3층, 지상 15층 규모, 299실로 건립된다. 총 595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향후 시는 연합기숙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 간 정보교류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함께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서울시교육청, 학생 선수 학습권 보호 ‘박차’

일반 학생과 ‘또래 멘토링’ 진행
내주부터 맞춤형 학습플래너 보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4월 중 관내 모든 학생 선수에게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플래너’를 배부하고, 연말까지 ‘학생 선수 또래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교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돼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도

변화에 따라 학생 선수 학습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서로에게 교사 역할을 하는 ‘학생 선수 또래 멘토링’을 5월 초부터 진행한다. 이 제도는 학생 선수는 일반학생에게 교과 지식을 배우고, 일반학생은 학생 선수에게 스포츠 지식을 배우는 상호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하는 중·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

선수 또래 멘토링’ 결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학교장 확인을 받은 후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대 및 체육진흥교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플래너’를 학교 운동부 소속 9000여명 학생 선수에게 오는 22일부터 보급한다.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 선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학교체육’ 포털에 공개한다.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플래너’는 자신의 훈련과 학습을 모두 스스로 관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마인드맵 형식의 일일기록지이다. /이현진 기자